

민주 6·9전대 흥행 “고민되네”

국민경선 선거인단 참여 저조 예상에 지도부 임기도 7개월 불과

당권 도전 8명…뜨거운 경쟁 분위기 안 살아나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통합당에 비상이 걸렸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에 서 치러져야 할 전당대회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도부 경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8명에 불과하다.

당권을 놓고 ‘이해찬·김한길’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는 있지만 8명 가운데 6명이 지도부에 진출할 수 있어 뜨거운 경쟁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 새로운 인물도, 별다른 당내 이슈도 없어 컷오프까지 실시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너무나 차분한 (?) 분위기다.

이는 지도부의 임기가 7개월에 불과한데다 추후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대권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위원으로 당내의 역학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는 6·9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국민 선거인단이 지난 1·15 전당대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시 1·15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 참여한 국민 선거인단은 70만2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전당대회 흥행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6·9 전당대회에서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지역별 대의원 대회 투표 결과를 현장에서 즉시 공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오는 20일 울산에서 대의원 대회가 진행되면 그날 바로 대의원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다음 날 이뤄지는 부산 지역 대의원 대회 투표 결과도 바로 공개하는 방식이다.

김한길 의원 등 다수의 후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같은 방안을 강행한 것은 순자적인 지역별 대의원 투표 결과 발표로 전당대회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흥미를 제고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2002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순회 개표를 통해 흥행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는 각 지역별 대의원 대회에서 나타나는 후보들의 성적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경선 초반부터 이해찬 후보의 대세론이 형성된다면 전당대회 흥행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아도 흥행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대세론까지 형성되면 국민적 관심이 오히려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울산에서부터 지도부 경선을 시작하고 23일부터 30일까지 당원 및 국민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간다. 광주의 후보자 합동 유세와 투표는 오는 22일 진행된다.

이어 다음달 5~6일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와 8일 현장 투표를 거쳐, 9일 전당대회장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9 전당대회의 흥행을 일으킬 만한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지만 지역별 순회 투표에 기대를 걸고 있다”이라며 “이번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12월 대선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데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전대주자 8인 첫 TV토론회

‘이-박 역할분담론’ 공방 치열

민주통합당 6·9 전당대회에 출마한 8인의 주자들은 17일 KBS·MBC·SBS 방송 3사 주최로 열린 첫 번째 TV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해찬·박지원 역할분담론’이 최대의 쟁점이 됐다.

김한길 후보는 “총선 실패는 계파 공천에서 시작됐다고 하면서 평화적 인 계파정치에 기대려는 사람이 있다”며 “필실에 앉아서 당신이 무슨 자리, 내가 무슨 자리 한다고 하는 건 당원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꼬문을 열었다.

이에 이해찬 후보는 “진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로 편 가르기 위함에 아니다”며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은 것이고, 당대표는 당원과 참여자가 뽑은 것이다”고 받아쳤다.

김 후보는 또 “지금도 제안이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반문한 뒤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한 때라고 하면서 이 후보가 당의 위기를 몰고왔다. 답답 이후 당 지지율은 7~8%”(포

인트) 급락했고, 문재인 상임고문 지지율도 한 자리 숫자로 내려앉았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480 대표주자인 우상호 후보도 “(이 후보가) 유력 대선후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중립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거론했다.

김 후보는 나아가 당내 순회구 상임고문으로 통하는 조정식 후보에게 “시·도당 경선에서 대의원 투표결과만 따로 현장에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문제로 분류되는 강기정 후보는 “민주당에 좋은 후보 존경하는 자산들이 많은데 유력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 생각은 않고 밖을 쳐다보며 연대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후보도 “여제 민주당의 유력 대권 후보도 공동정부론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를 잘 치르는 것은 당내 혼란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해 당내 정비가 우선돼야 힘을 강조했다.

추미애 후보는 “총선 패의 원인은 당시 지도부의 좌우연대”이라고 지적했고, 이종걸 후보는 총선에서 전략홍보본부장을 맡은 우 후보에게 “총선에서 패배했는데 전대에 출마

하는 게 맞나”라고 공격했다.

문용식 후보도 “공천권이라는 먹잇감이 나타나자 지도부가 계파나 나눠먹기라는 탐욕을 부렸고, ‘반MB’면 된다는 안일함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상임고문의 ‘찬물을 서둘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공동정부 주진’ 발언에 대해 당시 우선 스스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정세균 상임고문으로 분류되는 강기정 후보는 “민주당에 좋은 후보 존경하는 자산들이 많은데 유력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 생각은 않고 밖을 쳐다보며 연대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후보도 “여제 민주당의 유력 대권 후보도 공동정부론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를 잘 치르는 것은 당내 혼란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해 당내 정비가 우선돼야 힘을 강조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하는 게 맞나”라고 공격했다.

문용식 후보도 “공천권이라는 먹잇감이 나타나자 지도부가 계파나 나눠먹기라는 탐욕을 부렸고, ‘반MB’면 된다는 안일함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상임고문의 ‘찬물을 서둘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공동정부 주진’ 발언에 대해 당시 우선 스스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정세균 상임고문으로 분류되는 강기정 후보는 “민주당에 좋은 후보 존경하는 자산들이 많은데 유력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 생각은 않고 밖을 쳐다보며 연대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후보도 “여제 민주당의 유력 대권 후보도 공동정부론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를 잘 치르는 것은 당내 혼란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해 당내 정비가 우선돼야 힘을 강조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여야 개원협상… 불법사찰·상임위 수 조정 쟁점

여야는 17일 19대 원 구성을 위한 개원협상에 들어갔으나 각종 쟁점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19대 국회를 오는 6월 5일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견례를 갖은 첫 회동을 갖고 원구성 실무협상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정도 이어진 협상에서 여야는 다음달 5일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남북관계발전특위와 국제재판권특위 등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성과 없이 운영되는 국회 내 비상설 특위는 폐지하고 최소한의 법위 내에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쟁

점인 상임위원회 수 조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 원구성,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해 18일 오전 다시 회동키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국회 상임위 조정,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주후 논의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비대위원장 “통합진보와 연대 지속 의구심”



민주통합당 박지원(원쪽) 비대위원장이 17일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통합진보당 강기갑 비대위원장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통합진보당이 자정능력을 가져서 빨리 해결해주기를 바라는데 당권과·비당권과 두개의 비대위가 출범하는 등 아직 정리하지 못하는 데 대해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며 “과연 우리가 통합진보당과 애원 단일화로 연합·연대를 지속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대 국회 원구성 문제에 대해 “상임위원장은 정당 간 의석 비례를 따지면 금방 나올 수 있으며 당별 상임위원장 배분도 국회 관행이 있다”며 “법적 개원일인 다음달 5일에 산뜻하게 출범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상임위 증설에 대해선 그는 “분당위와 정무위는 업무 효과나 문화·예술 진전에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2개 늘이는데 10~20억 들지만 더 큰 효과가 있다면 주자할 필요가 없지만 새누리당이 설득해도 하지 않겠단다면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 시·도당위원장

장병완·우윤근 의원

단독 출마·추대될듯

민주통합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신임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 후보등록 접수 결과와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과 우윤근(광양·구례) 의원이 각각 단독 입후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22일 화순 하니움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인 시당 및 도당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위원장으로 공식 추대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대의원 대회가 끝난 직후 민주통합당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후보 8명이 참여한 광주·전남 합동연설회를 가진 뒤 대의원투표를 실시해 현장에서 개표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당권파는 혁신비대위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18일 출범을 목표로

당원비대위 구성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실화 될 경우 한정당에 2개의 비대위가 존재하는 조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만나 사퇴를 간곡히 호소하고 비대위를 출범하겠다”며 “무릎을 꿇는 한이 있더라도 호소를 드리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선 국민의 뜻과 당원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출당 가는 등을 완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구당권파의 당원비대위 출범

이석기·김재연 사퇴 압박에 구당권파 “사퇴는 파국” 반발

통합진보 갈등 고조

통합진보당 신당권파가 17일 구당권파인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것과 관련, 구당권파 측은 “사퇴는 곧 파국”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신당권파는 구당권파의 ‘당원비대위’에 대해 “당의 결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력 저지하기로 하는 한편, 중앙위 폭행 가담자 처벌 및 구당권과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출당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당권파는 혁신비대위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18일 출범을 목표로

움직임에 대해 “당을 대표하는 기구는 혁신비대위 하나다. 당원비대위 출범은 당의 결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선언했다.

혁신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종우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위 폭력사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으며, 이를 시일 내 조사를 완료하고 가담자에 대해 강도높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제주도당은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혁신비대위 지지를 선언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첨단 신창동 상가 건물

파실분 환영! (8억~12억 즉시 가능) 《매수자 대기중!》

광주 원룸 매매

파실분 → 빠른 계약 가능!

사실분 → 원하는 땅 구해드림!

우리 공인중개사

010-3622-6076
062) 576-8549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빌딩 매매

- 대지 : 257평
- 연면적 : 900평
- 보증금 4억 3천만원/
월 2200만원
- 월자금 : 10억 원
- 매매가 : 38억

상무지구 건물 매매

- 대지 : 200평

- 연면적 : 150평

- 보증금 : 1억 5천만원

- 월자금 :